

# ‘메달 아닌 감동 선사’... 도쿄올림픽을 빛내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 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선수들이 많았다. 특히, 수영과 육상, 체조 등에서 가능성을 보인 선수들이 많아서 3년 뒤 파리올림픽에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황선우(18·서울체육고)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 수영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잡았다.

황선우는 올림픽 데뷔전이었던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44초62를 기록, 2010년 11월 16일 박태환이 광주아시아경기장에서 수립한 1분44초80의 종전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자유형 200m 결승까지 올라 최종 7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100m에서는 대형사고를 쳤다.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7초97을 기록해 자신의 종전 한국기록(48초04)을 0.07초 줄였다.

100m 준결승에서는 47초56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한국기록 뿐 아니라 아시아기록까지 갈아치웠다. 2014년 남태평양(중국어)가 작성한 종전 아시아기록(47초65)을 7년 만에 0.09초 앞당겼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전체 4위에 올라 결승에 진출했다.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경연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오른 것은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5년만이었다.

3년 후 21세가 되는 황선우는 파리올림픽에서 박태환 이후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진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우하람(23·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이빙 종목에서 신기원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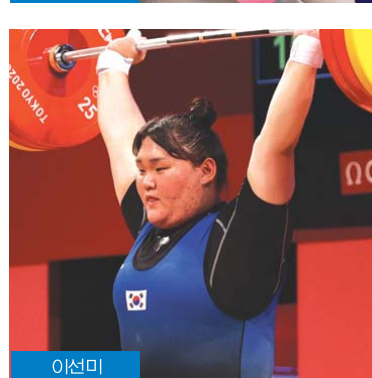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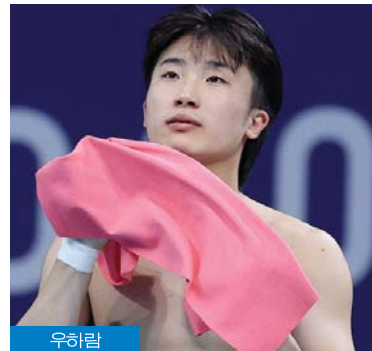
우하람은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기록해 12명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4위는 한국 다이빙의 올림픽 무대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 다이빙은 1960년 로마 대회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다.

종전 최고 성적도 우하람이 썼다.

우하람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10m 플랫폼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결승 무대를 밟았다. 우하람 이전에는 올림픽 예선을 통과한 선수도 없었다.

우하람은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것 자체로 영광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 비해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력도 좋아했다는 점에서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황선우, 수영 100m 아시아신기록 경신...65년만에 표선수 결승 다이빙 우하람, 역대 최고 4위·높이뛰기 우상혁 24년만 한국新 허리 수술 받고 올림픽 도전한 제2의 장미란 이선미 4위 등극 기계체조 류성현, 근대5종 정진화, 럭비 대표팀도 ‘눈길’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은 불모지나 다름 없던 한국 육상에서 엄청난 성적을 올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였기에 더욱 빛났다.

우상혁은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4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 남자 높이뛰기 신기록이자, 한국 육상 트랙·필드의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이다. 1997년 이진택이 세운 2m34의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한 1984년 LA 올림픽 남자 멀리뛰기 김종일,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높이뛰기 김희선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높이뛰기 이진택의 8위를 넘어섰다.

우상혁은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 2m85를 넘었고, 2m37이던 대기록도 도전했고, 2m39도 넘을 뻔했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후회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자 기계체조 마무의 류성현(19·한국체육대)은 아쉬운 4위에 올랐다.

고 선수 생활을 시작한 류성현은 세계랭킹 6위로 한국 기계체조의 기대주로 성장했고, 메달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류성현은 경기 시작부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긴장한 탓에 착지에서 흔들렸다. 라인타치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류성현은 “첫 올림픽 출전인 만큼 긴장하고 많이 떨었다. 너무 떨어서 착지도 제대로 못 해 아쉬웠다”고 말한 후 도쿄올림픽 경연을 바탕으로 기술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제2의 장미란’이라 불리는 이선미(21)도 여자 역도 최중량급 경기에서 인상 125kg, 용상 152kg을 들어올려 합계 277kg으로 4위에 등극했다.

2020년 허리 수술 후 재활을 거쳐 힘겹게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 이선미는 최고의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썼다.

이선미는 생애 처음 올림픽 무대에 올라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여 파리올림픽을 기대하게 했다.

근대5종의 정진화(32·IH)는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정진화는 도쿄올림픽 남자 근대5종에 출전해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후배 전승태가 한국 근대5종 올림픽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뒤이어 정진화가 이름을 올렸다.

근대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경기를 모두 소화해 점수를 합산해 메달을 가리는 종목이다.

두 선수가 메달을 걸기 위해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공중파를 타면서 근대5종이라는 생소한 종목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럭비대표팀은 도쿄올림픽을 최하위로 마쳤다.

럭비 대표팀은 2019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홍콩에 역전승을 거둬 사상 첫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 럭비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건 1923년 럭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약 100년 만이다.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에 섰다.

럭비 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서 비록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은 박수를 받아도 충분했다.

/뉴시스

## 단풍미인씨름단, 백두·한라장사 배출

고성장사씨름대회서...백두·서남근·한라-김기환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하 단풍미인씨름단)이 ‘위드스제약 2021 민속씨름 고성장사 씨름대회’에서 두 명의 장사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단풍미인씨름단은 2016년 창단 이래 장사 배출이 없어 아쉬웠으나 이번 대회 2개 체급에서 1~2호 장사를 연달아 배출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5일에 김기환 선수가 한라장사(105kg 이하)를 거쳐 8일에 서남근 선수가 백두장사(140kg 이하)를 차지했다.

장사 결정전은 5전 3승제로 펼쳐졌다. 김기환 선수는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이효진(수원시청) 선수를 상대로 승부를 3:1로 마무리 지었다. 첫판은 연장 끝 차돌리기로 승리했다. 이어진 세세 번째 판에서는 각 들배지기와 잡채기로 점수를 연달아 획득해 한라장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기환 선수는 실업 무대 데뷔 3년 만에 첫 한라장사 타이틀을 얻었다. 전주대와 광주공고를 졸업한 김기환 선수는 키 178cm 몸무게 105kg으로 들배지기와 오금당기기가 주특기인 선수다.

서남근 선수는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박찬주(태안군청) 선수를 3:0으로 제압했다. 첫판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방의 경고를 이월



서남근



김기환

어내 한판을 획득하고 두 번째 판은 연장 끝 밀어치기 세 번째 판은 팽팽한 힘겨루기 끝 잡채기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전주대와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서남근 선수는 키 185cm 몸무게 140kg으로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선수다. 2018년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첫 장사 타이틀 획득 이

후 3년 만의 장사 복귀, 단풍미인씨름단에 2020년 입단 후 첫 장사 등극이다.

특히 서남근 선수는 4강과 장사 결정전에서 한판도 점수를 내주지 않는 의기를 보여줘 추후 대회가 기대된다.

단풍미인씨름단 김시영 감독은 “상대에게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짜기가 잘 맞아 들어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장사 획득 경험을 바탕으로 추석 장사 씨름대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이번 대회에서 이 외에도 태백급 김성하 4품(5위), 황찬섭 6품(7위), 한라급 이승욱 7품(8위), 백두급 김병찬 5품(6위)을 획득하는 등 출전 선수 9명 중 6명이 8강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고성장사 씨름대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했다.

/정음=김태환기자

## ‘4강 신화’ 여자배구 대표팀 “함께해서 영광·행복”

SNS 통해 감사의 인사 전해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달성한 한국 여자배구팀 선수들이 감사를 전하며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여자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5년 만의 메달 도전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올림픽 참가국 중 최약체로 분류됐지만 후천과 집중력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한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세계랭킹 6위)를 넘지 못하고 아쉬운 4위를 차지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첫 올림픽에 출전한 박은진, 이소영, 안혜진은 영광이었고 행복했다고 되돌아 봤다.

박은진은 “너무나 좋은 감독님과 코칭스텝 선생님, 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제 첫 올림픽에 나와 값지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너무나도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소영은 “기다리고 꿈에 그렸던 나의 첫 올림픽이 저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다”며 “모두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안혜진은 “나를 너무 감사하다. 첫 올림픽에 좋은 언니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올림픽 내내 많은 응원과 관심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힘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동료들과 선수단 전체에게 감사를 전한 선수들도 있었다.

염혜선은 “도쿄올림픽이 저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 이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모두 고맙다”며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글을 적었다.

김희진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달성한 한국 여자배구팀 선수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사진=박은진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왔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팀원 한 명 한 명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수지는 “너무 소중한 나의 마지막 올림픽. 더 소중하고 애뜻했던 대회였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경기가 힘이 될 수 있음에 감사했고 행복했다”며 “이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었던 감독님과 늘 저희를 위해 노력해준 스텝들 그리고 선수들이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오지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올림픽 모든 시합이 끝났다. 시합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올 때 대표팀에서의 생활이 제일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며 “우리 배구를 절대적으로 응원해준 모든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여자배구 대표팀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뉴시스

### 여자배구팀에 포상금 총 6억원

‘4강 기적’을 이뤄낸 여자배구대표팀에 두둑한 포상금이 주어진다.

대한배구협회는 9일 “신한금융그룹이 여자배구대표팀에 격려금 2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팀에 지급되는 포상금 총액이 6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신한금융그룹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 진출에 성공,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긴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에 격려금 2억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자배구대표팀은 대한배구협회 2억원, 신한금융그룹 2억원, 한국배구연맹 2억원 등 총 6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뉴시스